

“정보사회와 종교교육”에 대한 논평

김 용 정

(동국대학교)

필자는 여기서 발표자들의 정보화 사회에 대한 해명과 부정적 측면의 대안을 제기한 종교 윤리 교육에 대한 강조점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필자의 소견을 간단히 소개하고 기조 강연을 해주신 송병순 교수님의 좋은 지적을 몇 가지 재음미 하는데 그칠 것이다.

인류가 컴퓨터에 힘입어 이루어낸 큰 성과들 중에는 우주 로켓의 오차없는 발사를 통한 천문 기상의 정밀한 관측과 통신 위성의 발달 그리고 복잡성과 혼돈의 물리학의 세계에 까지 도전할 수 있게 된 것들은 빼놓을 수 없는 것들이다. 특히 현대의 정보화 시대가 인류에게 큰 선물을 안겨 준 것은 지구촌의 시대를 열어 준 것이다. 통신 혁명과 매체의 발달은 세계의 모든 지식, 사상, 뉴스, 교역, 유통, 예술, 문화, 종교에 이르기까지 전 정보의 통신과 교류를 동시에 가능케 한 것이다. 그것은 서로 다른 문화권을 이해하게 함으로써 폐쇄적인 배타성과 도그마를 벗어나 인류 공존의 지혜를 가르쳐 주어 세계 평화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다.

공업화 시대의 특징은 인간의 육체적 기능을 자연의 영역으로 확대시킨 것이었으나 정보화 시대의 특성은 인간의 정신 활동의 중추가 되는 뇌의 활동을 대행하는 인공두뇌를 만들어 자연을 조작하고 인간이 원하는 일들을 고속으로 처리함으로써 우리들의 자연관과 세계관 내지 인간관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문명 비평가 리프킨은 그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Jerry Rifkin, Algeny, Viking, 1983: 199~200).

이 컴퓨터 혁명의 중요성은 산업혁명의 계기를 만든 증기기관에 비길 수 있다.

중기기관의 발명 이후 인간은 물리적인 일을 에너지 자원을 사용하여 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이 지금 컴퓨터로 움직이는 인공두뇌를 써서 사고(思考) 활동을 행하게 된 것이다.

인간의 감각 내지 지각의 세계 그리고 뇌의 구조와 정신적 세계를 모의하여 인간의 인지적 세계와 기계를 통합하려는 인공지능 내지 인지과학은 분명히 차세대의 정보과학으로서 21세기를 지배하게 될지도 모른다. 지금 가속적으로 발달하고 있는 정보화의 진행은 전 사회구조를 일변시키고 있다. 오늘의 대량생산, 대량소비 사회에 있어서 컴퓨터와 정보통신 과학의 하이테크(high tech)의 공로는 인간을 노동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줄 기술의 대혁명이라 할 만큼 광범위한 업적을 제공해 주고 있다. 국가의 기구, 기업, 군, 금융기관, 공장, 슈퍼, 학교, 가정에 이르기까지 사람이 해야 할 만사를 컴퓨터에 의한 로봇과 정보통신 기계가 모두 해결해 주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하이테크를 인간해방의 메신저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문제가 있다. 사람이 기계에 의지하게 되면 자연 본래의 순박한 천성이 파괴되고 천지자연의 도(道)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장자의 비유는 접어둔다 하더라도 기계가 모든 것을 다해 주게 되면 인간은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가 되고 말 것이다. 사실 신세대들은 이미 어려운 일을 기피하고 쉽게 살아가려는 수동적 인간으로 변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도 또 접어둔다 하더라도 또 다른 여러가지 문제가 뒤따르게 된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컴퓨터의 등장으로 정보화 사회가 발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통적인 정신문화와 가치관은 거기에 대응하기도 전에 급격한 변화를 강요 당하고 있다. 이 정보화 사회에서 가치관의 변화는 현재 밀어닥친 무수한 변화 중에서 겨우 하나에 불과하다. 현재는 공업 기계로 구성된 사회로부터 컴퓨터로 구성된 사회로의 전환기에 있으며 우리들은 새로운 다원화 사회에 적응을 강요당하는 소용돌이 속에 살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 정보화의 기술은 매스미디어의 범람과 영상매체를 통하여 청소년의 신경 말초적인 본능에 충동을 일으키게 하여 수많은 성의 타락과 범죄를 일으키는 잠재적 요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미래학자 토플러(Alvin Toffler)가 말한 바와 같이 정보화 시대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정보화 시대에는 거짓과 참이 불분명해진다는 것이다. 아주 쉽게 소비자를 속일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고 소비자는 그것이 진짜인 양 착각할 수 있다.”

말하자면, 정보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 정보를 날조할 수 있고, 정보기구에 의해 무서운 독재정권을 조직할 수도 있다. 그것은 개인의 모든 정보를 살살이 관찰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보를 쥐고 있는 권력자에 대한 견제장치가 필요하다.

지금 영상 세대라고 불리는 청소년들은 컴퓨터 화면에 등장하는 각종의 가상 현실을 현실로 착각하여 그것을 모의하여 큰 사고를 내거나 정신적 혼미에 빠져 갈등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리고 또 큰 문제는 이미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극단적인 개인화의 문제이다. 현대의 영상 매체 문화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이버 공간의 가상 현실의 연출자인 컴퓨터를 동반자로 삼아 컴퓨터 화면에 출연하는 여러 형태의 대화자들에 대응하여 거기에 상응하는 여러 형태의 다수자의 내가 되어 대화를 나누게 되는 극단적 개인화가 문제이다. 컴퓨터 화면을 통한 영상, 회의, 영상교육, 영상 대화가 시공을 넘어선 고능률의 장점을 갖고 있으나 기계인 컴퓨터의 가상 화면에 갇혀 개인이 극단적으로 고립화되어 생생한 인간 본래의 인간성을 박탈 당하게 될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세미나에서 발표를 해 주신 송병순 교수, 김원동 교수, 한 내창 교수, 이동한 교수는 한결같이 현대 정보화시대의 많은 문제점들을 날날이 비판하고 있다.

예를 들면 송병순 교수는 기조 강연에서 Drucker가 지적한 대로 오늘의 정보화 사회는 분명히 전통문화의 단절의 시대라는 것을 강하게 지적하고 있다. 즉 전통과의 단절은 전통적 가치에 의한 사회통제의 약화를 가져와 현대인들을 심각한 가치 갈등에 빠트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치갈등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규범·무의식·무감각·무절제·무질서와 같은 부정적인 삶의 존재방식을 취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사는 오늘이 첨단 정보사회라고 하지만, 그 미래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떨쳐 버릴 수 없게 한다는 것이다(p.7-11).

다시 말하면 인간의 필요에 의하여 개발된 과학기술은 인류의 물질 생활을 놀랍게 향상시켰지만, 인간을 기계의 종으로 만들어 가고 있으며, 물질적 욕망에 사로잡히게 함으로써 인간을 비인격적인 인간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것이다(p.11).

심지어 송교수는 다매체, 혹은 다채널 매체의 등장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은 그런 매체들이 마치 마약과 같은 혹은 별거벗은 성욕과 같이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 매체에의 과다 노출은 미디어 중독, 미디어 매니아와 같은 것이며, 이것의 위험성이 마약이나 절제되지 않은 성욕보다 더 위험한 것은 전파 전달의 무선택권 때문에 더 그렇다고 진단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송교수는 정보화 사회의 부정적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종교윤리교육을 역설하고 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세계 윤리선언에는 세계의 거의 모든 종교에서 발견되는 네가지 포괄적이며 오래된 지침, 영원한 진리가 도출되고 있다. 즉, ① 삶을 존중하고 비폭력에 노력하는 문화에 대한 의무, ② 결속의 문화와 공정한 형태의 세계무역에 대한 의무, ③ 삶에 있어 아량과 정직의 문화에 대한 의무, ④ 기회균등과 남녀평등의 문화에 대한 의무 등이다.

「세계윤리선언」은 “개인의식이 변화되지 않고는 세계가 보다 나은 방향으로 변화될 수 없다.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개인적·집단적 수준 모두에 걸친 집단의식의 변화이다. 반성·명상·기도·적극적 사고를 통한 정신적 힘의 각성 그리고 마음으로의 복귀를 주장하는 바이다.

따라서 그는 결론적으로 궁극적으로 종교 교육의 두가지 각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첫째, 인간-자연-사회-우주로 연결된 인간실존에 대한 종교적 각성교육은 물질문화에 집착하는 인간성 상실을 극복할 수 있는 인간의 정체성 확보에 도움을 줄 것이다.

둘째, 윤리적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 종교라는 점을 감안하면 인간의 양심을 자극하는 종교윤리 교육은 오늘날 사회윤리와 부재와 타락을 치유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매우 공감이 가는 지적이다.

미래학자 네이스비트(J. Naisbitt)는 현대사회를 하이테크가 발전할수록 인간적 반응으로서 하이터치(high touch)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강조한 바 있다.

‘하이테크=하이터치’라는 것은 사람이 기술에 대응해서 나타내는 반응과정을 그리기 위해서 필자가 언제나 쓰는 공식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새로운 기술이 사회에 도입될 때에는 언제나 균형을 되찾으려고 하는 인간적 반응이 나타난다. 즉, 그것이 ‘하이터치’이다. 이 하이터치가 없으면 기술에 압도되어 사람이 견뎌내지 못하여 결국 기술은 저항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하이테크일수록 더욱 하이터치가 필요한 것이다.

네이스비트는 초월적인 명상, 요가, 불교의 선(禪) 등이 모두 하이터치에 속한다고 말하고 그러한 운동들이 텔레비전이 등장한 것과 때를 같이하여 일어났다고 하여 요가와 컴퓨터가 기묘하게 공존한다고 보고 있다.

한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종교는 매우 배타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종교국가인 우리나라의 경우 어떻게 종교간의 대화를 촉진시키고 또한 종교간의 협동과 조화를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것이다.

송교수는 종교가 윤리적 차원을 넘어선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협의의 차원에서 그렇고 오히려 본질적으로는 도덕성은 종교를 초월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도덕 형이상학의 차원에서 종교가 서로 만나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송교수가 지적한 세계 윤리선언의 네가지 덕목이 모두 도덕성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요컨대 윤리가 종교보다 우선할 때 종교간의 갈등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